

NEWS



동의대 '영상콘텐츠 제작' 여성실무자 과정 개강

동의대는 지난 14일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에서 부산 인적자원개발원의 지원을 받는 '교육용 영상콘텐츠 제작 여성실무 전문가 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동의대는 부산 인적자원개발원에서 사업비 6500만원을 지원받아 11월 23일까지 15주간 대졸 미취업자 및 졸업예정자 40명을 대상으로 동의대의 영상스튜디오와 컴퓨터실습

에서 교육용 영상콘텐츠 제작 관련 교육을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전공의 고학력 미취업 여성을 대상으로 콘텐츠 사용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교육용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해당 교육은 대학의 전문교수와 산업체의 실무 강사로 운영되며 교육 후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게 된다.

병원이 영화·드라마 로케 명소로

성모병원 두달새 4편 촬영 '아름다운 병원' 이미지 정착

부산에서 개원한 한 종합병원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각광받으면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16일 부산성모병원에 따르면 올해 6월 초 개원한 이래로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개원 두 달 남짓 만에 총 4편을 촬영했다.

지난 8월 초에는 하지원, 임창정 주연의 '1번가의 기적'과 탤런트 손태영, 김지유, 감지석이 나오는 MBC 베스트극장이 이 병원을 배경으로 촬영됐다. 또 송강호, 박지영 주연의 '우아한 세계'의 촬영이 곧이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8일에는 참신한 소재와 작품성으로 높은 시청률을 보이고 있는 MBC 베스트극장 '바다가 하는 말'의 촬영이 진행됐는데 이 촬영에는 병원 외래, 응급실, 병원 야외까지 담겼다.

또 삼류인생의 한 남자가 월드컵 경기를 보는 것이 소원인 꼬마 여자와이와 조우하게 되면서 펼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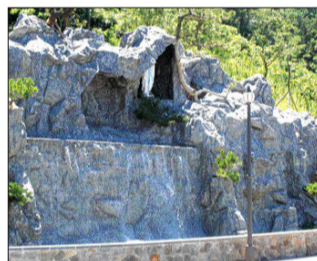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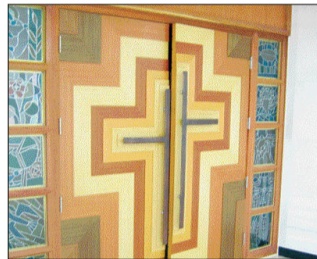


는 박신양, 예지원 주연의 '눈부신 날에'가 지난달 부산성모병원에서 무사히 촬영을 마무리지었다.

촬영 스태프들은 이 병원을 두고 서울의 큰 병원 못지않게 세련됐다는 말을 전하는가 하면, 이기대나 광안대교 등 아름다운 주변 환경은 물론 병원 곳곳에 배치된 예술작품과 환자를 배려한 병원의 인테리어 등이 '아름다운 병원'에

“병원 곳곳에 배치된 예술작품과 환자를 배려한 병원의 인테리어 등이 '아름다운 병원'에 가장 잘 부합한다.”

가장 잘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병원 관계자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최신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알릴 기회가 돼서 좋았다”며 “하지만 병원생활에 따른 환자



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병원이 추구하는 정신적 치유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수미기자 ksm@metrobusan.co.kr

IN BRIEF

佛문화원 패션 비디오 아트전

프랑스문화원은 한·불 수교 120주년을 맞아 프랑스 예술진흥원에서 기획한 비디오 아트전으로서 총 18가지 작품을 통해 패션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수 있는 전시회 '의상을 넘어서'를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경성대학교 미술관 제1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17일 오후 7시 오픈하게 되는 이 전시회는 단지 의복을 보여주는 것뿐 아니라 디자이너의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부산은, '종교우대통장' 출시

부산은행은 종교단체 실적과 신도의 개인실적을 모아 기부금 지급 및 각종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교우대통장'을 16일 출시했다. 종교우대통장 가입대상은 종교단체와 개인이며, 기부금은 종교단체와 개인의 종교우대통장 예금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거래실적이 우수하면 정기예금 등 각종 예금 가입 시 우대금리 등의 추가 서비스가 제공된다.

부산은행 상품개발팀 이지호 팀장은 “이 상품은 종교인 개인 고객들의 은행거래 실적을 모아 종교단체를 위해 기부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교회, 사찰, 성당 등으로부터 많은 호응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스위스 크네벨·日 데라와키 PIFF 한국영화공로상 수상

부산국제영화제(PIFF) 조직위원회는 16일 한국영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한국영화공로상' 수상자로 스위스 프리부르그 국제영화제 마살 크네벨 집행위원장과 데라와키 겐 전 일본 문화청 문화부장을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마살 크네벨 집행위원장은 프리부르그 국제영화제에서 이장호 감독 특별전을 개최하는 등 매년 한국의 장·단편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소개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데라와키 겐 전 문화부장은 2004년부터 일본 도쿄에서 한국독립영화제를 개최하는 등 한·일 양국 간의 문화교류에 노력해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PIFF 조직위는 류더화를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 수상자로 선정했으며 시상식은 제11회 PIFF 기간에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부산대·한진중공업 산학협력 협약체결

부산대학교와 한진중공업은 16일 오전 부산 중구 한진중공업 본사에서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차세대 해양구조물 설계 및 IT융합기술 개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 조인식에서 김인세 부산대학교 총장과 홍순익 한진중공업 사장은 산학 공동연구사업 수행과 기술 교류, 보유 연구장비 및 시설 협설비 이용, 기술인력 양성 등을 골자로 하는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대와 한진중공업은 해양환경·하중 시뮬레이션 기술, 구조성능 시뮬레이션 기술, 유체안정성 시뮬레이션 기술, 환경친화형 청정기술 및 첨단 조선해양기자재 설계 시뮬레이션 기술 등 차세대 신기술 선박과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첨단 조선공학 핵심기술과 IT기반 설계지원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특히 이번 협약으로 BK21사업인 '고부가가치 선박 및 심해자원개발용 해양구조물 설계 지원 IT융합기술 개발'을 좀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16일 경주에서 열린 대교는높이컵 초등학교 축구대회 저학년 경기인 무원 대 경남가야초등학교전에서 어린이들이 치열한 볼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 부산지사는 오는 18일 철도차량관리단 고속기지 내 유치선에서 2006년도 울지훈련의 일환으로 철도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실제 훈련을 통해 관계기관의 비상 시 대처능력 배양과 국민 안보의식 고취로

철도공사, 내일 민관군 비상대응훈련

지역단위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 시 및 재해·재난 발생시 신속한 인명구조 및 긴급복구 능력을 향상해 철도 수송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번 철도비상대응훈련은 부산행 KTX 열차가 고속기지 입구 범일 건물목 진입 중 불순분자에 의해 선로가 파괴되고, 차량이 탈선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

으로 긴급 복구요원 및 장비를 투입하여 사상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파괴된 선로를 복구하여 열차의 정상운행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훈련은 민관 합동훈련 인원 165명을 비롯해 소방차, 구급차, 철도복구장비 8종을 동원해 실제 사고와 동일한 상황을 설정할 예정이다.